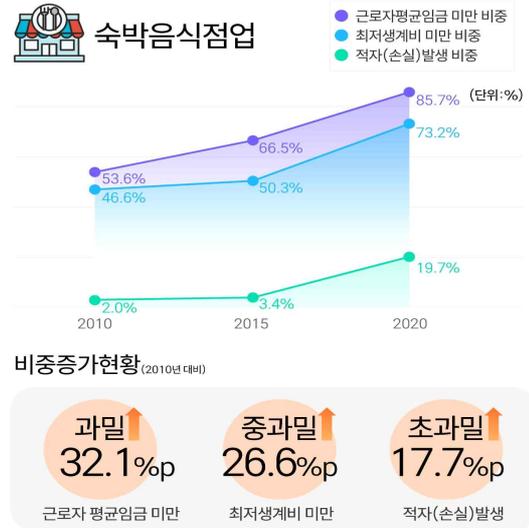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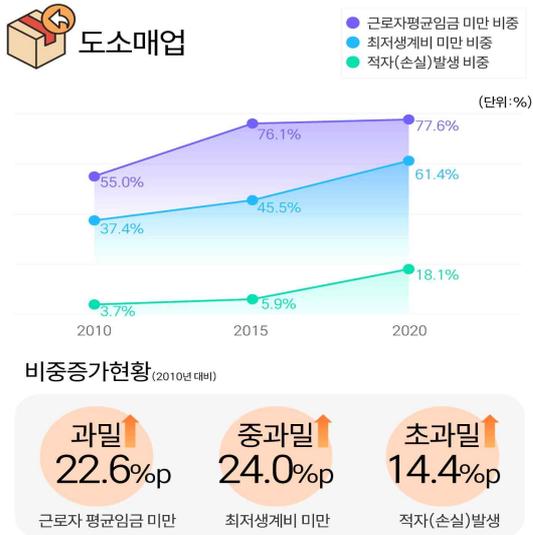


 인천신용보증재단 <small>INCHEON CREDIT GUARANTEE FUNDATION</small>	<h1>보 도 자 료</h1>		 인천광역시
	배포일자	2025년 12월 30일(화) (사진별도 有)	
담당 부서 인천신용보증재단	담당자	조사연구실 송영석 실 장 ☎ 032-724-1590 조사연구실 김희수 연구위원 ☎ 032-724-1592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“인천 도소매 ·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, 수익성 기준 과밀화” 고찰

- 통계청 경제총조사(2010 · 2015 · 2020년) 원자료 기반
- 근로자 평균임금 미만 비중 도소매업 77.6%, 숙박음식점업 85.7%

- 인천신용보증재단(이하 ‘인천신보’ 라 함, 이사장 이부현)은 「인천시 소상공인 과밀화 측정 및 통계발굴 연구」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인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수익성 기준의 과밀화 신호가 고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.
-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총조사 원자료(2010 · 2015 · 2020년)를 바탕으로 과밀화를 ‘공간적 밀집’ 이 아닌 ‘임계치 대비 영업이익’ 에 초점을 두어 업종별 영업이익을 근로자 평균임금 · 최저생계비 · 손실(적자) 기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과밀화 수준을 제시했다.
- 핵심 수치로는 2020년 기준 도소매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2,520만원으로 근로자 평균임금 미만 사업체 77.6%, 최저생계비 미만 61.4%, 손실 발생 18.1%로 나타났으며, 숙박음식점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1,000만원으로 근로자 평균임금 미만 사업체 85.7%, 최저생계비 미만 73.2%, 손실 발생 19.7%로 나타나 도소매업보다 더 취약한 양상을 보였다.



자료 : 인천신용보증재단 조사연구실, 통계청 경제총조사(2010·2015·2020년) 원자료
주) 2020년 SBR 프레임 전환으로 연속 시계열 절대 비교에 유의

- 인천신보 조사연구실 관계자에 따르면, “두 업종 대부분이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익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, 이는 단기 경기 요인보다는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의 정황으로 보인다” 고 말하면서도 경제총조사는 5년 주기의 통계이며 2020년 조사부터는 SBR(기업통계등록부) 기반 프레임으로 전환되어 2010·2015년과 절대 수준의 단순 시계열 비교에는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.
- 이부현 인천신보 이사장은 “이번 결과에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10곳 중 7~8곳이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” 며 “향후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별첨 : 사진 2부. 끝.